관광도시 전주서 즐기는 미국문화

전주시, 미국대사관과 전주세계문화주간 행사 열어 미국의 힙합 · 팝댄스 · 우쿨렐레 야외공연 등 다채

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주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, 미국문화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전주에 서 열린다.

시는 6일부터 10일까지 국립무형유 산원과 팔복예술공장, 전주한옥마을 등 일원에서 '2018 전주세계문화주 간-미국주간'행사를 개최한다.

전주시와 주한미국대사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오리지널 해외 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 에게 다양한 해외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, 지난 2016년 프 랑스주간, 2017년 영국문화주간에 이 어 3회째를 맞게 됐다.

특히, 올해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미

국대사관과 공동으로 주최 · 주관함 으로써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 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오는 6일 오프닝리셉션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미국주간 행시는 이튿날 인 7일부터 팔복예술공장에서 세계 적인 포토저널리스트인 제레미믹의 전시로 테이프를 끊는다.

또한, 7일에는 교통아트 잔디정원에 서 미국영화를 상영하는 무비나이트 와 바베큐 클래스&파티가 열린다.

이후, 오는 8일에는 전주소리문화관 에서 우클렐레 콘테스트 그랑챔피언 이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우쿨렐 레 연주그룹인 호노카앤아지타의 공 연, 9일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

세의 백댄서를 주축으로 빅사이즈 여성으로 구성된 프리티빅무브먼트 의 힙합공연이 있을 예정이다.

이번 행사 주간 동안 풍남문광장과 전북대학교 구정문 등에는 미국대사 관이 준비한 핫도그와 샌드위치 등 미국 길거리 음식을 만날 수 있는 푸 드트럭도 찾아간다.

이외에도, 시민들을 대상으로 워크 숍과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등도 열 릴 예정이며, 시는 타문화를 포용하 는 미국적인 특색에 맞춰 다문화가 즈 등 전주지역 곳곳에 살고 있는 다 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행사를 진행 할 방침이다.

이에 앞서, 시는 단순 기관 간 국제 교류에서 한 발 더 나가 해외홍보 뿐 만 아니라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국 _ 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힘써왔다.

를 알리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전주 를 방문한 미국 아티스트와 대사관 관계자 등에게 전주가 보유하고 있 는 우수한 전통문화를 홍보하는 기 회로 삼겠다는 각오다.

최현창 시 기획조정국장은 "3회째 맞는 전주세계문화주간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교류의 결실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시작됐 다"며 "특히, 올해 미국주간행사에서 는 국내 다른 도시에서도 한 번도 선 보이지 않은 아티스트들을 초청, 문 화지수 1위인 전주시민들의 문화적 다양성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준 비한 민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린다"고 당부했다.

/송효철 기자

건강한 여름나기 꾸러미 전달

양연수 전주 덕진구청장 취약계층 현장방문

양연수 덕진구청장은 2일, 관내 쪽방거주민 여섯세대를 방문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선풍기 및 건강한 여름나기 꾸러 미를 전달하는 등 민생현장 살피 기에 나섰다.

이 날 방문은 연일 지속되는 폭 염에 좁고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무더위와 외로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쪽방 거주민들을 찾아가 선 풍기 및 쿨스카프 등을 전달, 이들 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강한 여름 을 보내기 위한 폭염행동요령을 알리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 졌다.

금압동 쪽방에 거주하는 김 모 씨(78세)는 "올 여름 극심한 무더 위에 지쳐 기운이 없었는데 이렇

게 찾아와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 도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 매 우 감사하다"며 기뻐했다.

양 덕진구청장은 "올 여름은 폭 염 및 고온현상의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크다"며, "부서별 폭염대처를 강화하여 폭 염피해가 없도록 더욱 총력을 기 울일 것이다"고 말했다.

이와 함께, 덕진구 생활복지과는 쪽방 거주자 및 선풍기 지원이 필 요한 폭염 취약계층 57세대에 300 만원 상당의 여름나기 물품을 전 달하고 폭염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(☎270-6781)나 가까운 주민센터로

문의하라고 말했다.

/송효철 기자

전주시, 납세자보호관 설치

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고 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 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.

지방세 분야 전문지식과 다양한 세 정업무 경험자로 구성된 납세자보호 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 무 상담, 세무조사 · 체납처분 등 권 리보호 요청,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,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사 항을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 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.

이와 관련, 시는 '전주시 납세자보 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'를 개정했 으며,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 보 안내함으로써 많은 납세자가 보다 더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 도록 할 방침이다.

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"이 제도 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/송효철 기자

전주푸드, 서울 서대문구 어린이 밥상에



전주시는 2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석진 서울 서 대문구청장 등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-서울

시 서대문구간 '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'을 체결했다

'평생학습 강사가 세상을 바꾼다'

전주시,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연수 성료

전주시가 평생교육에 앞장서면서 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온 평생학습 강 시들의 역량강화를 돕고 나섰다.

시는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교육실에 서 전주지역에서 활동하는 평생학습 강사 80명을 대상으로 '2018년 전주시 평생학습 강사 역량 강화 연수'를 개

이날 연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학습 강사가 갖춰야 할 역량 을 개발하고 학습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 또, 강사들이 평생학습 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평생학습 기반 조성 및 평생 학습 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.

특히, 이번 연수에는 평생학습 강사 를 비롯해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사, 장 애인 평생교육 강사, 시민강사, 강사를 희망하는 예비자 등 다양한 분야 강사 들이 참여, 평생학습 각 분야의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연출했다.

먼저, 첫 강연에 나선 한근태 한스컨 설팅 대표는 참석자들에게 △삶의 보 람을 찾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△목표를 명확히 하고 바른 길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묻고 답 을 구해야 하는지 △신뢰로 맺어진 깊 은 인간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

통 질문 대화 방법은 어떤 것인지 Δ 비즈니스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질 문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소개했다.

이어, 조용진 글로벌 탤런트 대표가 '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위한 소통리더 십 디자인 을 주제로 평생학습 시대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, 학습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다양한 시민의 기대 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평생학습이 이 뤄질 수 있도록 실천 아이디어를 모색 하기 위한 분임토의와 특강 등을 진행

끝으로, 종합토론에서는 조석중 강사 가 평생학습 활성화 사례를 설명하고 전주시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 는 현안 이슈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협업하는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.

이에 앞서, 시는 평생학습 강사들에 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상반기에는 평생학습 강사학교를 진행 했다.

박재열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"전주시 평생학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보 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다 하고 있 는 평생교육강사들 덕분"이라며 "남을 가르치기 위한 역량 강화 의지가 시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"이라 고 격려했다.

/송효철 기자

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은폐 시도한 외국인 여성 항소심도 '실형'

전주지법 제2형사부(박정대 부장판 사)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70대 노인 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(도주치사 등)로 기소된 A(29·여· 우즈베키스탄인)씨에 대한 항소심에 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 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

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

4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마트 인 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B(72·여)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.

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.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자신의 차 량 열쇠를 친구 차량 조수석에 감추 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.

하지만 한 택시기사의 결정적인 제 보로 범행에 이용된 차량의 뒤쪽 네 자리 번호가 확인되면서 A씨는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.

재판부는 "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 에 가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보 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, 유족들

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"이라고 지적했

다만 "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, 초범인 점, 경제적으 로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자 유족 들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, 양 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"고 판시했다.

전주매일 홈페이지

www.jjmaeil.com

상담전화: 010-3655-9009

블로그: http://kangsb1959.blog.me 메일: ndtherapy119@gmail.com

